전남도-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강화

빛가람혁신도시서 간담회
道, 10개 사업 협조 요청
지역 발전·혁신도시 명품화 협력

전남도가 지난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의 명품화를 위해 상상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등 25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 추진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10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남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 ▲정부 전력반도체 예타 대응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망 조기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과 발맞춰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기 추진 ▲2023 전남도 메가 이벤트 참여 및 홍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스템 지속 운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등 4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나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시범도시 구현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원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등 3개의 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전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져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서 세계 속으로 힘차게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 SOC복합센터' 건립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3년간 3조 1000억원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산림자원硏, 산림자원 활용 친환경 소재 개발 잰걸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에코플레이스와 연구·개발 협약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달 31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에코플레이스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현을 위한 탈플라스틱 연구과제 발굴 ▲친환경 섬유 등 생분해성 천연소재 개발과 생산 기술 및 시설 자원 공유 ▲미사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환경 분야 유망기업 육성 등에 협력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유소재 연구원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섬유소재 발굴을 통해 산업용(비의류) 섬유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산업체에 지원한다. ㈜에코플레이스는 생분해성 천연소재 개발기업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환경오염 저감 제품을 생산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업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미이용 산림자원을 발굴해 안정적 원료 공급 체계를 정립해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미이용 산림자원을 산업 용도로 활용하도록 친환경·저탄소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탈플라스틱 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실용적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관광재단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전남도가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관광 분야의 다양한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신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수를 12명까지 확대하고, 심사 평가에 따라 창업 지원금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창업 분야와 역량,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 ~ 55세의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로,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거나 관광 업종 외 창업 3년 미만인 자로 관광 분야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자이다.

모집분야는 관광 IT·플랫폼 등 기술혁신형, 체험콘텐츠형, 시설기반형, 기타 등이다.

전남도는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30여명을 선발하고, 관광 창업 아카데미 실시 후 창업 의지, 역량,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 사업계획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12명을 선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문화 확산

도립도서관, 프로그램 공모

전남도립도서관이 도민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는 '2023 도민 제안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 분야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 대상 책과 관련한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와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전자우편(nanan1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프로그램은 적합성, 창의성, 충실성 등 심사를 거쳐 총 5개 과정을 선정해 도서관 정규 강좌에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 제안 공모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확대

대출 지원 225명 28일까지 모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23년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접수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금액을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춰 지원을 확대했다.

선발 인원은 어업인후계자 187명, 우수 경영인 38명 등 225명이다. 신청 분야는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소금제조업 등이다.

오는 28일까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 9개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 대상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영어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의 어업인이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해양수산 신지식으로 선정된 어업인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5억원(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원(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어업인후계자 지원 금액이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대출금리는 2%에서 1.5%로 낮아졌다.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에서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됐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신규 어업인력을 유입하고, 전남 수산업을 이끌 유능한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선발 인원 및 지원 금액 확대에 노력하고 어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제도 개선, 정책·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젊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탄력

정부 공모사업 대거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공모에 대거 선정되면서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 공모 결과 전국 3개소를 모집하는 '지구조성 사업' 분야에서 곡성과 장흥 등 2개소가 선정됐으며,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분야에선 전국 3개소 중 광양이 선정됐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유통·체험·관광의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4년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다.

지구조성 사업에 선정된 곡성군은 지역특화 품목인 토란을 활용해 ▲가공상품 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곡성 토란도란 마을 축제 ▲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한우를 활용해 ▲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지원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조성 등에 나선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 도모를 위해 융복합 인증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2년간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원이 지원된다.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인 광양빵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공제품 컨설팅 ▲공동마케팅 활성화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가공과 체험·관광까지 접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영광 찰보리, 고흥 유자, 순천 매실 지구 등 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